

# Jeff Beck



## Jeff Beck(1944. 6. 24 ~ 현재)

지미 페이지, 에릭 클랩튼과 더불어 3대 락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블루스, 하드락, 퓨전재즈, 기타락과 일렉트로니카의 조합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긴 아티스트이다. 지미 페이지나 에릭 클랩튼에 비해 메가톤급 상업적 성공을 이루진 못했지만 내놓은 대부분의 앨범이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앨범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제프벡은 6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며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야드버즈로서, 솔로 아티스트로서 각각 헌액되었다.

제프벡은 1965년 야드버즈(Yardbirds)에 가입함으로써 음악적 커리어를 시작했다. 지미 페이지, 에릭 클랩튼 또한 이 그룹 출신이다. 야드버즈의 대부분의 히트곡은 제프벡이 있었던 기간에 녹음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야드버즈의 미국투어 중 예고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며 해고되게 된다. 음악적 완벽주의로 인한 자제력 상실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룹을 나오고나서 벡스 볼레로(Beck's Bolero)를 발매하고 본인의 이름을 딴 그룹을 만들게 된다. 이 그룹으로 첫 앨범을 내고 활동을 이어가던 중, 핑크 플로이드와 롤링 스톤스가 차례로 그를 밴드의 일원으로 삼고자 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게 된 제프벡은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가졌다.

제프벡 그룹의 두 번째 앨범은 1972년에 발매된다. 그 후에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하며 활동을 이어가던 제프벡은 1975년 첫 솔로 앨범 'Blow by Blow'를 발매한다. 재즈락 성향의 앨범으로 앨범차트 4위에 오르며 제프벡의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주게 된다. 이 앨범에는 스티비 원더가 작곡해준 곡 "Cause We've Ended as Lovers"가 수록되어 있다. 80년대에도 다양한 공연활동을 이어오다 1989년 'Jeff Beck's Guitar Shop'을 발매하였다. 이 앨범부터 제프벡 특유의 핑거스타일의 연주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 앨범으로 제프벡은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90년대는 제프벡이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시절이었다. 로저 워터스의 앨범, 영화 OST 작업, 선배 밴드의 트리뷰트 앨범까지. 그러던 와중 제프벡이 속했던 야드버즈가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이벤트가 있었다. 하지만 제프벡은 인터뷰를 통해 그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가 그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거라고 말했지만 난 그렇지 않다. 왜냐면 그들은 나를 밴드에서 내쫓았으니까!'

2001년에 제프벡은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와 기타 사운드의 조합을 실현한 실험적 앨범 'You Had It Coming'을 발매했고 이 중 'Dirty Mind'로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켈리 클락슨의 무대에서 함께 협연하는 좀처럼 보기 힘든 TV활동을 하기도 했다. 같은 해, 에릭클랩튼이 주최하는 '크로스로드 기타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 공연에서 제프벡은 지금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멤버조합으로 여겨지는 드럼 비니 컬리우타, 베이스 탈 위켄필드와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2009년에 제프벡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2010년에 'Emotion & Commotion'을 발매하였다. 이 앨범은 'Somewhere over the rainbow'같은 명곡을 자신만의 연주스타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을 조스 스톤과 같은 보컬과의 협연으로 선보였다. 이 중 Hammerhead가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가장 최근 2016년에 'Loud Hailer'를 발매하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현재 그의 나이는 한국 나이로 74세이다. 제프벡은 기존의 유명밴드에 속해있기 보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며 매 앨범마다 새롭고 신선한 시도로 동시대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나이 지긋한 오랜 팬부터 젊은 층까지 두루 섭렵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성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다.